

Press Release

Kukje Gallery

Julian Opie

줄리안 오피 Julian Opie (영국 런던 생, 1958-)

2014. 2. 13 - 3. 23

국제갤러리 2관 및 3관 (K2 & K3)

기자간담회: 2014. 2. 13 (오전 11시), 국제갤러리 3관 - 작가 참석 및 공개 인터뷰 예정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는 올해 첫 전시로서 영국 런던 출신의 작가 줄리안 오피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국내에서 선보이는 오피의 두 번째 개인전은 비닐 페인팅과 LED 패널뿐 아니라 대형 신작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9년 국제갤러리 첫 전시를 통해 한국에 소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오피는 조각과 회화의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후기 모더니즘의 주요 작가로서

이미 국제적인 무대를 통해 그 명성을 인정 받은바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들인 초상화와 풍경화들은 일종의 현대적 문자그림을 닮은 고도로 섬세하고 개인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오피의 작품들은 LED 사인이나 비닐 페인팅뿐 아니라 매우 정교한 색채의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비범한 재료학적 구사와 결합된, 미적인 요소와 개념적 엄격함의 조합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예술적 탐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세계

줄리안 오피는 1980년대에 건축물이나 도시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오브제들을 재해석한 독특한 사물들을 구축해내는 조각가로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초기의 주요 작업은 이후 작가의 고유한 스타일로 알려지게 될 풍경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매체들로 이어지게 된다. 이 후기 작품들에서 오피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인물과 장소들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드로잉들로 번안했으며 계속 발전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어휘들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도출해냈다. 디지털화 및 인쇄, 제작에 있어서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후의 작업에서 그의 핵심적 주제가 된다. 90년대 중반 오피는 자신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루게 될 요소로서 인물들을 다루기 시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작한다. 공공 사인물 혹은 상형문자를 환기시키는 고도로 단순화된 인물 형상에서 출발하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 삶에서 친숙한 주변인들을 포함한 캐릭터들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일러스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초기 회화들에는 예컨대 예술 행정가인 '엘렌'이나 교사인 '폴'과 같은 사실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오피의 인물화들은 놀라운 정도의 감정적 힘을 포착해내는 미묘한 색채의 팔레트와 탁월한 선묘로 특징 지워진다. 그의 작품을 그토록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간결한 제스처와 깊은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희인 것이다.

오피의 초기 회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인들, 친구들 혹은 일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특정한 인물 혹은 장소를 통해 그의 작품을 위치 지우는 일은 도시적 삶을 규정하는 역동적 시스템에 대해 탐구해 온 작가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 있어 항상 중요한 의미를 띠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오피 자신의 언급 속에서 잘 드러난다.

"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지나가는 군중들을 바라보라. 이 걸어가는 인물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에 휩싸여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면서도, 낯선 이들과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작위적인 춤을 창조 해낸다."

-줄리안 오피

줄리안 오피의 작업은 후기모더니즘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과 강력하게 연관된다. 바로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복제인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집단적인 소비층과 광고의 영향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가?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작가들 중 하나인 오피는 대량생산과 대량소통을 위해 고안된 기술들을 교묘하게 차용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대한 감동적이면서도 지적으로 신랄한 비평을 창출해낸다. 게다가 그는 화려할 정도로 정교하고 놀랄 만큼 아름다운 일상적 인물들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비평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전적으로 독자적인 포스트모던 장르를 구축해 낸 것이다.

전시소개

국제갤러리의 두 번째 개인전을 위해 작가는 2관과 3관에서 모두 전시를 할 예정이다. 각 전시장별 전시 설치는 총 3가지의 연작을 포함할 예정이다. 갤러리 벽면과 바닥을 활용한 이 멀티미디어 작품들은 오피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인물들의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채워진 다이내믹한 전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전시는 서울의 보행자들을 다룬 새로운 회화 연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 신전의 박공(frieze)들에서처럼 거리와 시장의 군중들을 몇몇 그룹으로 표현한 이 독특한 연작들은 패셔너블한 소품들과 핸드백들로 강조되어 있는 쇼핑객들과 바쁜 행인들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신작들과 함께 런던의 보행자를 담은 LED 애니메이션 회화 연작도 전시되고 있다. 오직 흑백 LED만을 사용한 이 친숙한 동영상 사인들은 관광객들과 일상적인 보행자들의 조용하고 비교적 특별한 것 없는 움직임을 묘사함으로써 일종의 우수 어린 시적 감정을 자아

낸다. 이 작품들은 밝은 색채의 서울 보행자 연작과 함께 설치됨으로써 사람의 움직임을 고도의 감각적인 안목으로 관찰해내는 오피의 명성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거대한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두 개의 레진 모형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종의 신석기 시대 토토텐과도 비슷한 이 인물 조각들은 농축된 레진으로 제작된 뒤, 작가의 잘 알려진 비닐 페인팅에서와 동일한 색채들과 스타일로 채색되어 있다. 서울 거리의 장면들에서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 거대한 인물들 역시 공간 속에서의 신체의 무게를 포착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피의 색채 사용은 과거의 조각들 역시 당대에는 다양한 색채로 채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놀라운 작품들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고대와 새로운 것들 사이의 이러한 유희야말로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경험이나 자아에 대한 감각을 규정하는 지에 대한 작가의 강한 관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줄리안 오피의 야심찬 창작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재료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상업적 분야에서 발견되는 광고 및 사인물들의 언어에서부터 제시방법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장르들 간의 교류와 '순수미술'의 경계확장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그로 하여금 작업을 음악산업과의 협업, 공공 교통시설 및 비-정통적인 장소에서의 설치작업, 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의 차용 등으로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의 정의와 21세기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급진적 도전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현대의 도시적 삶에 대한 그의 강렬한 심리적 초상들은 창작을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공공영역과 잠재의식 안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작가: 줄리안 오피

Julian Opie, Julian. 2012 © Julian Opie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줄리안 오피는 1958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1982년 골드스미스 컬리지를 졸업한 오피는 이 학교에 서수학하면서 리처드 Wentworth(Richard Wentworth)와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chael Craig-Martin) 등으로부터 시각예술의 속성에 대한 그의 생각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졸업 직후부터 오피는 유럽의 갤러리와 미술관들에서 전시를 가져왔으며,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영국예술위원회, 런던에 소재한 브리티시 미술관, 피츠버그의 카네기미술관, 스페인 발렌시아의 아 이반 현대미술관, 도쿄 국립현대미술관,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갤러리, 런던의 국립 초상화 미술관, 뮌헨의 렌바크하우스내 갤러리아 스튜디오시크, 암스테르담의 스테데리제크 미술관, 런던 테이트 컬렉션 및 빅토리아와 알버트 미술관등이 있다.

Contact: PR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매체의 특성상 별도의 이미지 편집이 요구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lian Opie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30 x 344.3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Julian Opie

*Man with a beard and dark glasses holding a water
bottle.*

2013

Vinyl on wooden stretcher

216.1 x 94.2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Julian Opie

Lily, eyes straight, head right, slight sm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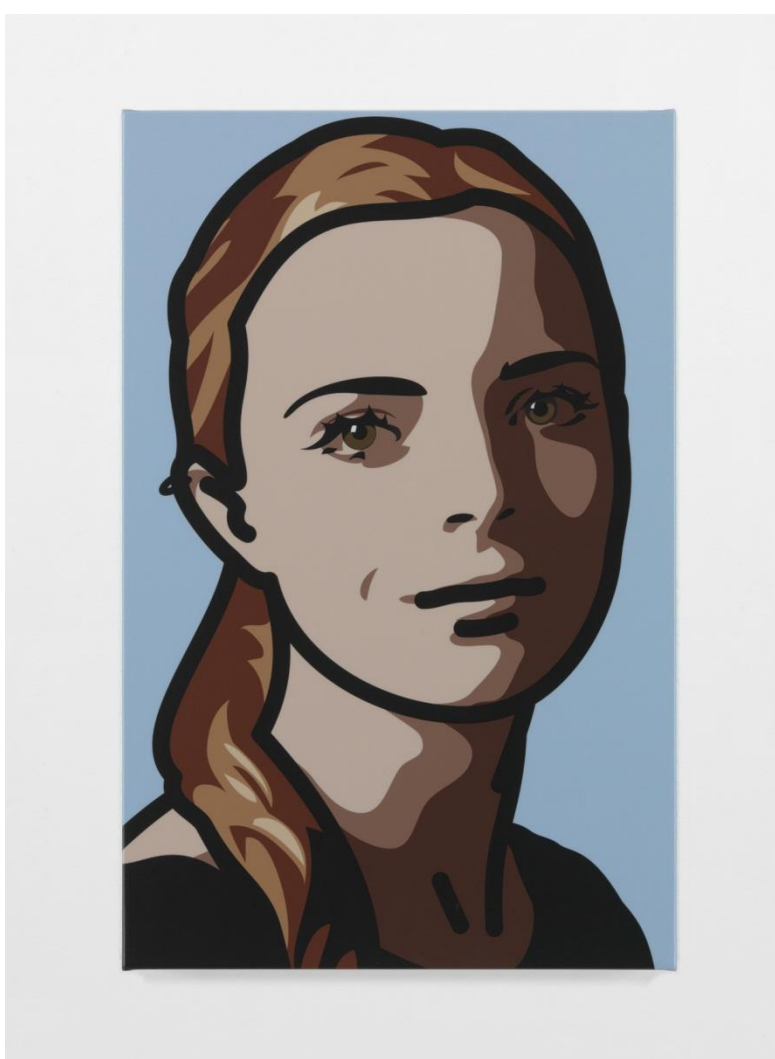
2013

Inkjet on canvas on wooden stretcher

216.6 x 141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Julian Opie

People 2 (square).

2014

LED wall mounted

168 x 168 x 12 cm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